

한국LPG가스공업협회

## LPG업계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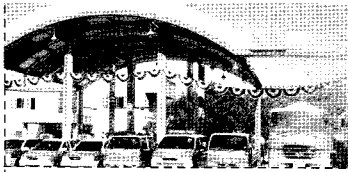
- ◆ 1분기 LPG車, 1만2777대 증가
- ◆ LPG충전소도 경기 탄다
- ◆ 6월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2400원
- ◆ 액법 하위규정 대폭 손질
- ◆ 주행세율 낮추고 교통세율 높인다
- ◆ 지엠대우, LPG 경상용차 '뉴라보' 선보여



### 1분기 LPG車, 1만2777대 증가

점유율은 13.8%로 제자리

1분기 동안 LPG자동차는 총 233만4049대가 운행 중이며 점유율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서 집계하는 유종별 자동차등록대수에 따르면 2009년 1분기를 기준으로 LPG자동차는 233만4049대가 운행 중이며 이는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1만2777대(0.5%)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경유자동차는 1만3127대(0.2%)가 늘어 총 615만11대를 기록했으



며 휘발유 차는 6만6672대(0.8%)가 증가해 832만3424대로 집계됐다. 이밖에 CNG차의 경우 3월말 기준으로 2만1364대가 등록돼 전년도 12월말에 비해 1046대(5.1%) 늘어났다. LPG·경유·휘발유 간 점유율을 살펴보면 LPG자동차의 점유율은 13.88%로 전년도 12월말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경유는 36.59%로 0.12%p 감소했다. 반면 휘발유차의 점유율은 49.52%로 0.12%p 증가했다.

[가스신문 4-10 김재형기자]



## LPG충전소도 경기 타다

### 신규허가업소 크게 감소, 3곳 그쳐

올해 1월말 기준 LPG충전소와 판매소 모두 신규 허가업소 및 허가 대기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LPG충전·판매사업소의 신규 허가 및 허가 대기업소 자료를 살펴보면, 충전소의 신규 허가업소는 3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7% 감소했으며 허가 대기 건수도 29개소로 124.1% 줄어 들었다.

판매소의 경우 신규 허가는 5곳으로 지난해보다 40.0% 감소했고 허가대기는 6곳으로 166.7% 줄었다.

신규 허가 및 허가 대기업소의 지역별로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LPG충전소는 경기(8개소), 경남(6개소), 대구경북(5개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LPG판매소는 경남(5개소), 대구경북(3개소), 광주전남(2개소)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LP가스공업협회가 2008년 집계한 전국 LPG충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충전소는 총 1,648개소로 SK계열사가 전체 시장의 40.1%를 차지했고, GS칼텍스가 22.6%, E1이 18.3%, S-OIL이 11.7%, 현대오일뱅크가 6.9%, 기타가 0.4%를 차지했다.

LPG충전소 중 프로판을 판매하는 업소는 2008년 기준 210개소이며 전국 판매소는 4776개소이다.

한편 LPG판매업소의 신규 허가 신청 등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2008



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충전소 부지 등의 땅 값을 지불할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줄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P가스공업협회 관계자도 “LPG차량이 늘어나면서 충전소 개업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한동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석유가스신문 4-1 김혜윤기자]

## 6월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2400원

### LPG별크로리 대표자 명의 소유...예외 허용

가스전용운반자동차와 LPG별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로 소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하지만 충전 및 판매업계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해 가스전용운반차량과 LPG별크로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대표자 명의로 소유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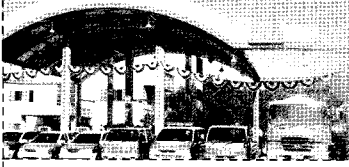
현행 액법시행규칙에는 LPG별크로리의 경우 충전사업자는 ‘보유’, LPG판매사업자는 ‘확보’로 규정돼 있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현재 검토중이며 오는 5월경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중인 내용으로는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현행 500kg에서 1톤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500kg로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자동차 충전소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사무실, 회의실, 세차시설, 자동판매기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간이 자동차 정비시설, 점포 등으로 확대해 주유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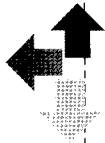


특히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LPG를 공급할 때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표준화(KS) 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은 검사 전부를 생략하도록 돼 있으나 설계단계 검사를 의무화해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경허가 대상시설을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의 위치 및 수량 증가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 전문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며 현재 최초 6월, 지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때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최초 6월, 매 3년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투데이에너지 4-2 조대인기자]



## 액법 하위규정 대폭 손질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으로 동일

그 외 모범택시·버스·지하철 요금은 올해 내 인상계획 없어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 시내 택시의 기본요금이 2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9일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1900원에서 500원 올린 2400원으로 12.64%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요금 인상률 12.64%는 서울시내 평균 택시주행거리인 4.958km에 대한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12.7%)범위 안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조정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LPG가격이 1000원대로 올랐지만(1008.42원)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3년간 평균가격인 825.96원으로 적용해 산출한 값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시간요금으로는 35초당 100원)으로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은 요금이 17.52% 오른 2005년 6월 이후 4년 만으로 새 택시 기본요금은 최근 요금을 조정한 부산·대구·광주·울산(2200원인)이나 대전(2300원)보다 100~200원 비싸다.



그러나 이들 광역시는 기본요금과 함께 거り요금을 함께 올려 전체적인 요금인상률은 16.2~20.72%로, 서울시보다 높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인상된 요금을 6월 1일 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4-9]



## 주행세율 낮추고 교통세율 높인다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조정·국민부담은 그대로  
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인 주행세의 세율을 30%에서 26%로 낮추고,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일정 부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 구조는 휘발유와 경유에 리터당 514원, 364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탄력세율 기준)가 부과되며, 여기에 30%의 주행세와 15%의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인 주행세로 거둔 세금은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 경유·LPG부탄 세액 인상분만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지난해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재원으로 쓰인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0%에서 26%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신, 휘발유의 교통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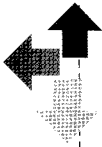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는 현행대로 휘발유 745원, 경유 528원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하락과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에 맞도록 지방세율을 인하키로 했다”며 “교통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 유류세에 대한 국민부담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4-4]



## 지엠대우, LPG 경상용차 ‘뉴라보’ 선보여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09 서울모터쇼’에서 LPG 경상용차 ‘뉴라보’를 선보였다.

[에이빙뉴스 4-4]

